

영화감독 꿈꾸는 어린이들 모여라



미래의 감독을 꿈꾸는 어린이들이 영화감독이나 영상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영화를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ACC에서 전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ACC시네마테크 어린이 영화입문 프로

감독·전문가, 아이들과 영화 제작
22일 작품발표회·25일 공개 상영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공식 데뷔작은 '미행(1998)'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놀랍게도 7세에 처음으로 8mm 필름카메라로 영화를 찍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이 운영하는 ACC시네마테크가 8월 특집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입문'이 18일 ACC문화정보원 라이브리파크에서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영화입문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필름을 직접 이용해 영화를 만들어보는 소규모 워크숍 형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실제 필름을 사용해 짧은 영화를 만들어보고 영화의 제작 원리부터 상영까지의 과정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현대 사회에서 동영상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출되고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등장은 아이들에게 동영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작 욕구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흥미 위주의 영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단순히 찍고 보여주는 행위로 인해 동영상에 포함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독해 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교육이 화두가

되고 주요 이유 중에 하나다.

ACC시네마테크의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입문은 영화를 이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서 실제 여러 종류의 필름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지를 표현하고 직접 자르고 붙이는 작업을 통해 편집과정을 이해하며 완성된 필름을 영사기에 돌려보으로써 영상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아이들은 아날로그 매체들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동영상의 원리를 자연스레 체득하고 즉각적인 구현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 떨어진 상상력을 끌어올려 이미지를 스스로 구현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필름과 그 영상을 이용한 설치작가로 유명한 변재규 감독의 영상 전문가들이 직접 아이들의 필름 제작을 지도하고 소통하며 더 탄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입문 워크숍은 18일 '조예트로프 제작워크숍' 22일 '작품발표회'로 구성된다.

참가자 별로 제출한 작품의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 최종 작품이 25일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 상영될 예정이다. 최종 완성된 영화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유연한 그리고 현업작가들의 노하우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작품으로 ACC시네마테크의 또 하나의 특별한 작품이 될 것이다.

워크숍 참가 신청은 15일까지 ACC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12명까지 모집하며, 보호자 참가 하에 7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라 소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여자들의 반응을 보고 프로그램 지속 여부와 대상자 확대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7127127 gungullove@srb.co.kr



정율성 예술혼 전파할 신예 성악가 누구

1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성악콩쿠르' 본선 진출 14명 결정... 총 상금 3천800만원

정율성 선생의 예술혼을 전파할 차세대 성악가가 가려진다. 2019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본선 무대에 오를 14명이 지난 10일 2차 예선을 통해 결정돼, 17일 오후 1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결선무대를 치른다.

이번 콩쿠르에는 36개 대학 출신 국내외 성악도 총 105명이 지원해 예술가곡, 오페라·오라토리오·콘체르트 아리아 연주로 1차·2차 예선을 치렀다.

최종입상자는 정율성 가곡 중 1곡, 한국가곡 중 1곡, 오페라·오라토리오·콘체르트 아리아 중 1곡, 각자 총3곡의 연주를 통해 8인이 결정된다. 입상자에게는 1위 1천500만원(광주시장상), 2위 1천만원, 3위 500만원, 그리고 정율성 가곡을 제일 잘 해석한 성악가에게 주어지는 정율성 가곡상 등 특별상을 포함해 총 3천8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후 본선 경연 입상자들의 무대인 '광주성악콩쿠르 입상자콘서트'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66, 7468. 김해진기자 hj@srb.co.kr

유럽·아시아 사로잡은 재즈 즐겨볼까

독인애플루트, 내한 공연
16일 광주 살롱드재즈서
유럽 피아노트리오 경향 선풍
신보 '언라이클리' 무대도

유럽과 아시아를 사로잡은 재즈트리오 독인애플루트(Dock In Absolute)가 광주를 찾는다.

독인애플루트가 16일 오후 8시 광주 살롱드재즈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 이번 내한 공연은 14일 인천을 시작으로 15일 서울, 18일 대구까지 이어진다.

이번 무대를 통해 독인애플루트는 최근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피아노 트리오의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이들은 어쿠스틱 피아노, 일렉트릭 베이스, 드럼의 구성으로 장르를 초월한 재즈의 새로운 가능성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또 새 앨범 '언라이클리(Unlikely)'도 함께 들려준다.

독인애플루트는 룩셈부르크 출신의 재즈트리오로 음악과 비주얼 아트 등 다양한 재능을 지닌 현대 젊은 유러피안 재즈의 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들은 특정 스타일을 중심으로 연주하기보



유럽 재즈신에서 떠오르는 신예스타 독인애플루트(Dock In Absolute)가 16일 오후 8시 광주 살롱드재즈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

다는 탈형식, 탈장르 자체를 특징으로 하며 트리오 구성임에도 거대한 스케일과 웅장한 사운드를 추구한다.

이들은 룩셈부르크 주변 국가인 프랑스, 독일을 포함해 유럽의 여러 재즈페스티벌에도 참여하는 등 전세계를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홍콩과 일본, 중국 등 여러 재즈 페스

티발에 참가하는 등 아시아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팀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7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지난해 서울과 제주도 공연을 통해 신선하고 유쾌한 사운드를 들려준 바 있다.

공연은 전석 3만원이며 예매는 인터파크, 예스24, 티켓링크, 네이버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 02-941-1150. 김해진기자 hj@srb.co.kr

인문학으로 풀어낸 '음식 이야기'

국립광주박물관, '31기 광주박물관대학'
9월 18일~12월 11일까지...현장 답사도

높은 인기를 끌며 매회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국립박물관 광주박물관대학이 올 하반기에는 '음식'을 주제로 시민과 만나는 자리를 갖는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사)국립박물관회와 공동으로 9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박물관 교육관 대강당에서 '제31기 광주박물관대학'을 개최한다. '음식으로 보는 인문학, 맛있는 식사'를 주제로 한 이번 강좌는 총 12회로 주제별 강의와 답사가 이뤄진다.

강의는 ▲백년식당, 노포기행 ▲속설에 담긴 음식 인문학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 ▲바다음식의 세계 ▲맥주 탐구생활 ▲의례로 본 임금님의 밥상 ▲인문학으로 본 제주 음식 ▲조선의 뒷골목 풍경, 술집과 음식 ▲맛, 그 지적 유혹 ▲그림 속 술의 맛과 멋 ▲의학문헌에 소개된 음식

이야기-동의보감 속 건강 밥상 ▲전라도 음식 이야기 등이다.

강연자로는 박찬일 음식칼럼니스트와 윤덕노 청보리미디어 대표,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원 소장,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 '맥주탐구생활' 저자 김호, 전통식생활문화연구소장 김상보 박사, 양용진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장,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정소영 문화연구·사회학 박사, 정혜영 호서대 교수, 지종길 광주흥성한의원장, 송화섭 중앙대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국내답사는 사전 신청자 80명 이내 한해 오는 10월께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박물관대학은 일반인 25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강료는 기존 회원 7만원, 신규회원 10만원이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이강하 삶과 작품세계 논한다

이강하미술관, 오늘 전남대서...공연도

양림동 작가, 이강하 화백의 삶과 작품 세계를 살필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이강하미술관은 14일 오후 전남대 예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회 이강하 학술세미나-남도의 맥, 이강하의 삶과 작품세계'를 진행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정금희 전남대 예술대학장을 좌장으로 오병희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양초롱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총감독,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등이 발제자로 나서 주제발표한다. 또 김희량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장,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이화백의 대표 작품을 들

래식음악으로 재해석한 작곡가 이승규의 첼로 소나타 '이강하리듬-초월' 중 천지인-역사, 영산강사람들 (피아노 이승규, 첼로 박효은)도 함께 연주된다.

이강하미술관 관계자는 "11년전 직장암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무등산의 별이 됐던 고 이화백이 남기고 간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 남도의 맥을 이어나가고자 했던 작품들은 지금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보고 느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강하미술관은 19일부터 24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여름을 그린다'를 주제로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양림어린이예술학교'를 운영한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프라하의 여름 밤공기를 광주서 노킨다

27일 노부스카르렛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야나체프 등 체코 작곡가 작품 연주

우리나라 클래식계 최고의 현악사중주단 노부스카르렛이 광주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노부스카르렛의 제 10회 정기연주회 노부스카르렛 '슬라브(Slavic)'이 27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드보르작의 현악사중주 7번, 야나체프 1번 '크로이처 소나타' 그리고 스메타나의 가장 사랑받는

현악 사중주곡 '나의 생애로부터'를 통해 슬라브의 질은 감성과 가을과 맞닿아 있는 여름 프라하의 밤공기를 무대에 제대로 담아낸다.

공연의 주제인 '슬라브'는 노부스카르렛에게는 도전이다. 그 동안 그들이 무대에 자주 올리지는 않았던 체코 작곡가 작품을 추진 것. 그들이 자주 선보이지 않았던 작품들만큼 열 번째 정기 연주회에 의미를 더한다.

관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드보르작의 초기 작품과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연주되지 않는 야나체프의 현악사중주 명곡을 소개한다.

노부스카르렛은 현악사중주 매니저먼트사로 가장 독보적인 글로벌 에이전시 지메나워의 첫

한국인 아티스트이다. 클래식 음반업계의 깊은 불황에도 세계 음악계의 호평을 받으며 각종 차트를 휩쓰는 등 유일무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첼리스트 오펜 바야르, 피아니스트 미셸 달베르트 등 거장 연주자들과의 협업 녹음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발매된 '베르크의 서정 모음곡,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음반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가 소개하는 '금주의 음반'에 선정되며 그 음악성과 실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5만원(학생 4만원)이며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7. 김해진기자 hj@srb.co.kr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추가공모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는 15일까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문화기반시설(4개소)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인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에게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으로 경력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시설에는 교육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지난해 광주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25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대상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문화기반시설이다. 선정된 기관 및 시설은 문화예술교육사를 필수 채용(6개월)하고, 교육사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설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문의 062-670-5771, 5767. 김옥경기자 okkim@srb.co.kr